

임진왜란 비밀병기 '변이중 화차' 장성군, 전시관 건립에 힘 보탠다

봉암서원 사업비 협조 요청에
군, 관계부처에 예산 지원 건의

임진왜란 당시 큰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의 비밀
병기 '화차'의 전시관 건립을 위해 장성군이 적극
협조에 나섰다.

화차는 장성 출생인 조선시대 문신 망암 변이중
선생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앞서 제작된 문종 화차
의 개량형으로, 40정의 승자총통을 일제히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수레 사방에 방호판을 장착하고 그
안에 병사가 들어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임진왜란
발발 후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기 위해 변이중 선생
이 사재를 털어 총 300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의 주요 전투에서 승전보를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지난 2011년에는 고(古)무기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복원되기도 했다. 망암 변이중 선생 서
거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봉암서원이
장성군과 전남도의 지원 아래 추진했다. (사)봉암
서원은 망암 변이중 선생의 후손들이 설립한 단체
로, 봉암서원은 숙종 23년(1697년) 망암 선생을 기
리기 위해 장성을 장안리에 창건된 교육기관이다.

복원을 마친 뒤에는 상무대 육군포병학교 훈련장
에서 발사 시연회도 가졌다. 당시, 14개의 승자총
통을 2회 발사해 300m 전방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
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1년 상무대에서 열린 변이중 화차 복원 발사 시연회 모습. 장성군은 화차전시관 건립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성군 제공>

이후, 복원된 화차는 상무대 내 육군포병학교 역
사관과 봉암서원 전시관에 전시돼 왔지만, 공간이
협소해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었다.

이에 (사)봉암서원은 660㎡ 규모의 화차 전시관
건립을 목표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 확보
를 위한 협조를 장성군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건립
취지에 공감한 장성군은 최근 문화재청과 문화체육

관광부, 전남도 등 관계부처에 화차 전시관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변이중 선생의 화차는 선조
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면서 "화차전시관이 건립
되면, 장성을 빛내는 또 하나의 훌륭한 역사문화자
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의 '흥(興)따라 강따라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이 금계국이 활짝 핀 탐진강변 길을 걷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비대면 경품 이벤트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이 자하
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비대면 프로
그램 '흥(興)따라 강따라 걷기'를 운영하고 있
다.

11일 현재 모바일 걷기앱을 설치한 장흥군 공
식 커뮤니티 가입자는 2638명이며, 주민들의 참
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걷기 실천 참여 방법은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장흥군 흥(興)따
라 강따라 걷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일상
속 걷기 실천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될 챌린
지 미션에도 참여할 수 있다.

8월에는 11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10일간 7만보 걷기

(하루 최대 1만보 인정) 달성자 500명에게 5000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챌린지를 실시한
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일
상 속 걷기 운동 생활화로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
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호 기자 kykim@kwangju.co.kr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군 '나주CT'

대학 진로·진학교재 기탁... 고교학점제 무료 북콘서트 준비도

공익 추구형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주)나주CT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교재를 지원했다. <사진>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CT에
서 300만원 상당의 대학 진로·진
학교재 100권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이 교재는 진로교육전문, 교
육컨텐츠 제작 기업인 (주)캠퍼
스멘토와 (주)모아컴퍼니가 후
원했다.

해당 책자는 교과 활동 중 과

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탐구 주제를 통해 잠재성, 장점, 성장 가능성, 문
제 해결력 등을 키워준다.

나주CT는 이번 책자 기탁 외에도 오는 2025
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캠퍼스멘토에서 출판한 고교학점제 '학과 바이
블'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전국에서 처음
으로 열기 위해 기획 중이다.

강민진 나주CT 대표는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나주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료 강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학과 바이블' 저자와의 북콘서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열 예정이다.

임철규 (주)캠퍼스멘토 이사는 "이번 기탁식
을 계기로 교육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
치는 기업이라는 목표를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기탁 받은 책자를 관내 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강민규 나주시장은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대
학입시, 진로와 관련된 교과 활동과 탐구 영역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해준 3개 업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청자 문양에 숨은 고려를 읽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오늘~11월 28일 특별전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문양으로 고려를 읽다.
용아혜초(龍牙蕙草) 해석류화(海石榴華)'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특별전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
리며, 고려시대에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미
술품에 등장하는 문양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감
상할 수 있다.

용아혜초와 해석류화는 청자에 새겨진 생경한
문양의 이름으로,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배경 속
에서 탄생했다. 각각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상
징한다.

전시유물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용아혜초와
해석류화가 표현된 불교 미술품도 선보인다.

고려시대 당시 도교를 흡수한 불교 문화의 영
향을 받아 청자에 두 문양이 표현된 이야기로 풀
어낸다.

국민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
려시대 미술품 문양의 상징성을 불교미술까지 아
울러서 가장 명묘하게 보여주기 위해 학계에서도 주
목할만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고려청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 관광지 공중화장실 코로나 방역소독

담양군이 관광지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점
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역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에 따라 군민과 방문객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안
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반을 자체 편성했다.

점검사항은 ▲소독실이 여부 ▲방역지침 안내·
홍보(스티커·포스터 부착 등) 여부 ▲청소상태 ▲
편의용품 비치(비누, 휴지, 손세정제 등) ▲실내
환기 여부 ▲일일점검표 게시·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미이행 사항
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 보수하기로 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네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